

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11. 25.(금) 15:30 | 배포 일시 | 2022. 11. 25.(금) 14:00     |
| 담당 부서 | 기획재정부<br>신성장정책과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박성골 (044-215-4550)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이명선 (lms0210@korea.kr) |

## 추경호 경제부총리,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

-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.25(금) 14:00부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에너지솔루션 마곡 R&D 캠퍼스를 방문하고,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방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및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되었음

### < LG 에너지솔루션 마곡 R&D 캠퍼스 방문 개요 >

- ▶ (일시·장소) 11.25.(금) 14:00~15:00, LG에너지솔루션 마곡 R&D 캠퍼스
- ▶ (참석자) ① 기획재정부 : 경제부총리, 비서실장, 정책조정국장
- ② 업계 : LG에너지솔루션 이방수 사장, 박진원 부사장, 김남호 상무
- ③ 유관기관 : 권순진 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본부장  
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

- 먼저 추 부총리는 LG 에너지솔루션 마곡 R&D 캠퍼스를 방문하여 차세대 이차전지, 핵심 소재·부품 등 첨단기술 개발 상황 및 주요시설을 살펴보고,
-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전망, 핵심 광물 수급 및 공급망 상황,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
-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 배터리, 소형전지, ESS 전지 등을 생산중인 국내 1위 이차전지 제조기업으로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('22년 200Gwh → '25년 540GWh) 하는 등 지속 성장중이며,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관련 특허를 보유(2만 5천건, '22.7월 기준)하는 등 기술혁신에 앞장서고 있음

-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주력산업인 동시에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따라 잠재가치가 큰 전략산업으로서,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
  -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등 공급망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음
-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관련 핵심 광물 수급동향 및 전망,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등에 따른 파급효과, 수출 여건 등 최근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하였음
- 이에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가 당면한 우려사항에 공감하면서,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을 총 결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
  - 특히, 그간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대응하여 미국 측과 양자간 협의를 긴밀히 지속해 왔으며, 재무부 하위규정\*에 대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조치 중임을 설명하고
    - \*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, 배터리 등 첨단제조 세액공제, 친환경차 세액공제 등
    -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「경제안보 공급망 기본법」 제정 등을 추진하고, 금년 중 핵심 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(산업부)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·체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
  - 아울러,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 등 세제 및 금융지원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, 기술개발 투자확대,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
    - 「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 지원반」 등을 중심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동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였음
-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는 동시에, 금일 논의한 글로벌 공급망 현안, 이차전지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